

시초

위대한 인민사랑의 메아리

10월의 밤, 영광의 밤이여!

김태룡

그 누가 밤은 안식이라 했던가
그 누가 밤은 고요한 정적이었던가
10월의 밤 여기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누리를 떨치는 환호로 세차게 끓어
번졌다
장쾌한 만세의 함성으로 뒤울렸다
어이 그렇지 않으랴
그리도 흥분하며 따르는 우리의
정도자
환하신 미소로 경축의 단상에 서계시
였나니
사랑으로 젖어든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인민의 가슴에 격동의 해일 일으켰
어라
얼마나 기다려온 이날이었더냐
얼마나 뵈고싶었던 원수님이시더냐
쌓이온 그리움과 간절함이
화산처럼 터져올라 눈부신 10월의 밤
정도자와 인민이 함께 하는 행복의 밤
생각도 깊어라
이밤을 위해 우리의 원수님
새해 정초부터 10월의 이날까지
고심과 로고로 지새우신 그분들을
어찌 눈물없이 헤일수 있으랴

힘찬길 남먼저 달려오시어 그이 베푸신
사랑과 은정 류달리 깊고깊아
재난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림없이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았고
세계를 휩쓸며 기승부리는 병마도
우리 생활의 기쁨은 끊어낼수 없었으니
인민을 지켜 인민의 아픔 가져주시러
고생도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아, 10월의 밤이여
인민의 가슴에 그토록
강렬히 끓어오른 것은 무엇이었던가
아버이시여, 우리의 원수님이시여
이밤만은 경축의 이밤만은
부디 만시름 다 잊으시기를
축하의 꽃물결 기쁨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이 하나의 진정 이 하나의 열망이었
나니
세상에 다시 없을
잠들줄 모르는 조선의 경축의 밤이여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정의와 위대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밤
오, 우리는 긍지높이 노래하리라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터쳐
인민에게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인사, 그 감사는 우리 인민이
그이께 올릴 감사였더라
인민의 생명보다 귀중한것 없다시며
새해 정초부터 방역전선의 진두에
서시어
세상을 무섭게 휩쓰는 악성병마로부터
수천만인민의 안녕 지켜주신 원수님께
강공과 폭우로 휘말린 마을과 전야들
힘찬길 헤쳐며 남먼저 찾아가시어
인민들 마음에 밝은 희망 안겨주시고
훌륭한 보금자리 눈부시게 펼쳐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께
인민에 대한 사랑 그리도 열렬하시어
우리 원수님
자신께서 받으실 감사마저 거듭 돌려
아, 원수님!
누구나 한결같이 소중히 불러보며
우러르는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
이여
어찌합니까 아이 흐려져 닦아내려도
자꾸만 솟는 우리의 눈물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중한 것이

주시는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한명의 악성비루스피레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아, 진정 누가 울려야 할 감사이고
정녕 어느분이 받으셔야 할 인사였던가
그이의 감사 분에 넘치는 그 인사에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으며 목메인 인민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터치지 못했거니
그이의 열화같은 감사 그것은
하늘처럼 떠받든 인민에게 드리신 경의
역척같이 쏟아안으신 인민에 대한
세상 제일 친근하신 아버지의
끝없는 정
원수님의 인민된 한없는 긍지안고
목청껏 터치노라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이의 음성엔 차고넘쳐 목이 짝
메이고
웃으시며 흔들려주시는 손길은
가까이 달려가 잡고만싶어 가슴 젖어
드니
10월의 밤은 눈물의 밤이런듯
둘러보면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병마로 고통에 허덕이는 무수한
사람들
그 얼마나 한탄과 비애의 곡성 터뜨
림니까
재난이 그칠새없이 들이닥치는
거리와 마을들엔 아픔의 눈물 마를줄

모르나다
하나 이 땅의 인민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불행이 아닙니다
가슴을 허비는 고통도 아픔도
앞날이 막막한 허무와 비판도 아닙
니다
이 행성에 다시 없는 행복의 눈물
입니다
운명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 품에 안기어 누리는 복된 삶을
다 말해주고 다 보여주는 인민의 눈물
이어서
이 눈물로 아름답고 강대한 내 나라
이 눈물로 일심단결을 떨치는 내 나라
아,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따르며 받들어갈 인민의 진정
방울방울에 고이고이 담아실고서
흐르는 눈물은 원수님만 믿고 사는
인민의 변심없는 충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던가
김일성광장 가득히 채운
오, 열병의 대오여
폭풍같은 환호속에
위대한 령장 우러러 행진해가는
장엄한 철의 흐름이여!
어려웠어라
진두에 나붙기는 저 군기마다엔
볼배의 굳기로 내 조국 지켜
세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이룩
하신
철세의 위인들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지속을 흔들며 행진해가는
우렁찬 저 발구름소리엔 백동쳐와라
영원히 우리 당만 믿고 따르며
폭풍만리도 뚫고 헤쳐갈
우리 심장의 박동소리가
열광의 환호는 지심을 흔들고
불타는 맹세는 메아리되어
우주만리에 울려퍼지는데

다 말해주고 다 보여주는 인민의 눈물
이어서
이 눈물로 아름답고 강대한 내 나라
이 눈물로 일심단결을 떨치는 내 나라
아,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따르며 받들어갈 인민의 진정
방울방울에 고이고이 담아실고서
흐르는 눈물은 원수님만 믿고 사는
인민의 변심없는 충성입니다
김 윤 식
오, 주석단에서 손들어 답례를 보내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러르는 가슴마다 불같이 뜨겁구나
저 영예로운 대오와 승결도 보폭도
맞추며
원수님 높이 받들어가는
인민의 이 긍지, 끝없는 행복이여!
그이 모셨기에 이 땅엔 전쟁의 위험
영영 돌아온
강대국의 력사 찬란히 펼쳐지고
그이 계시기에 횡포한 자연도 병마도
인민의 밝은 웃음 빼앗지 못했거니
원수님 높이 모시어
시간의 흐름따라 더욱 강대해지는
이 땅에
기어이 천하제일락원을 안아올릴
철석의 이 신념 열병광장의 메아리
되어
함차게 울려퍼지노라
아,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고맙습니다!

리송일

하늘땅이 동하고
천만심장을 격동시켰다
영광의 10월경축광장 단상에서
우리 원수님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물노니 동서고금에 언제 있었던가
나라의 최고정도자께서

아마도 감격에 북받치면
철로 흘러내리는것 눈물인가 봅니다
기쁜 날 환희의 10월명절
말로 다 터치지 못하는 격정이
눈물로 끓어올라 흘러내리다
아, 원수님!
누구나 한결같이 소중히 불러보며
우러르는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
이여
어찌합니까 아이 흐려져 닦아내려도
자꾸만 솟는 우리의 눈물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중한 것이

그이의 음성엔 차고넘쳐 목이 짝
메이고
웃으시며 흔들려주시는 손길은
가까이 달려가 잡고만싶어 가슴 젖어
드니
10월의 밤은 눈물의 밤이런듯
둘러보면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병마로 고통에 허덕이는 무수한
사람들
그 얼마나 한탄과 비애의 곡성 터뜨
림니까
재난이 그칠새없이 들이닥치는
거리와 마을들엔 아픔의 눈물 마를줄

모르나다
하나 이 땅의 인민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불행이 아닙니다
가슴을 허비는 고통도 아픔도
앞날이 막막한 허무와 비판도 아닙
니다
이 행성에 다시 없는 행복의 눈물
입니다
운명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 품에 안기어 누리는 복된 삶을
다 말해주고 다 보여주는 인민의 눈물
이어서
이 눈물로 아름답고 강대한 내 나라
이 눈물로 일심단결을 떨치는 내 나라
아,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따르며 받들어갈 인민의 진정
방울방울에 고이고이 담아실고서
흐르는 눈물은 원수님만 믿고 사는
인민의 변심없는 충성입니다
김 윤 식
오, 주석단에서 손들어 답례를 보내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러르는 가슴마다 불같이 뜨겁구나
저 영예로운 대오와 승결도 보폭도
맞추며
원수님 높이 받들어가는
인민의 이 긍지, 끝없는 행복이여!
그이 모셨기에 이 땅엔 전쟁의 위험
영영 돌아온
강대국의 력사 찬란히 펼쳐지고
그이 계시기에 횡포한 자연도 병마도
인민의 밝은 웃음 빼앗지 못했거니
원수님 높이 모시어
시간의 흐름따라 더욱 강대해지는
이 땅에
기어이 천하제일락원을 안아올릴
철석의 이 신념 열병광장의 메아리
되어
함차게 울려퍼지노라
아,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하늘땅이 동하고
천만심장을 격동시켰다
영광의 10월경축광장 단상에서
우리 원수님 하신 말씀
물노니 동서고금에 언제 있었던가
나라의 최고정도자께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백전백승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탄생일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최상의 대정치
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최상의 군사전략적지위
에 올라선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
한 군사력과 조선인민군의 백승의
위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만 걸어온 부대의 자랑찬 전투적
행로가 새겨진 성스러운 군기들
을 대오앞에 휘날리며 열병대원
들은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
군만마의 천연오새, 무쇠방탄벽
이 될 억척불변의 맹세드높이 불
야경을 이룬 광장을 보루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정당한 인민의 명절을 맞는 기
쁨으로 잠 못 드는 불밝은 거
리마다에서 평양시민들은 손
뿌아 기다리던 어머니당의 생일
의 첫시작을 열병의 힘찬 발구
름소리와 무적의 동음으로 장식

한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환
영하였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자랑찬 승리의 력사,
문명의 세계를 펼쳐가는 인민군대
에 대한 신뢰의 정으로 충만된 축
하의 웨침소리가 평양의 밤하늘가
로 끓어올라 울리었다.
친부모, 친형제같은 인민들
의 모습에서 열병대원들은 조국
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는 수
호자의 긍지를 더욱 뜨겁게 새겨
안으며 피어린 항일대전과 전화
의 불길속에서 마른땀 군민대단
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
나게 계승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수도의 수십리연도에 펼쳐진
열병대오의 장엄한 흐름과 평
양시민들의 열광찬된 환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일
에 최정에강군으로 자라난 혁명
적 무장력의 불패의 위용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
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준중
시위도 성대히 진행되었다.
시위대오마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
고갈 신념의 구호가 끊없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웅청년대
군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며 진
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병행진에서는 청

전과 변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
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의 자긍심
과 드높은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광만이 휩
쓸었던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
남도의 피해지역들에 훌륭히 일떠
선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
가 펼쳐져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 기쁨을 주었
다. 련이어 펼쳐진 재해로 혹심
하게 파괴되었던 험지에 황홀하
게 솟아난 집집의 장가마다에서
리쳐오른 로동당만세소리, 행복년
전 웃음소리는 그대로 인민의 환
희를 더해주며 10월의 하늘가에
끓어올라 메아리쳐갔다.
진정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은 인
민의 위대한 아버지의 두리에 친
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
력,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력사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며 사
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진군해나가는 강국
의 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
식에 걸한 남조선과 국제사회에
서 련일 놀라움과 부러움, 경탄
과 찬사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
려나오고있다.
《KBS》, 《런함뉴스》, 《한
의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시
계례》를 비롯한 남조선의 거
의 모든 언론사들과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프랑스
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일본의 NHK방송을
비롯한 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열병식소식을 담은 수백여건의
기사들과 편집물들을 초
독특뉴스로 경쟁적으로 보도
하고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과
많은 외신들은 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두고
다른 나라 국가지도자들
에게서 찾아볼수 없는 《대
우 이례적이고 진솔한 연설》
로 전세계에 파급되었다고 하
였다.

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자기
인민에게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적대국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압박
과 찬사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
려나오고있다.
한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
조선의 열병식준비를 대대처럼 환
하게 밝힌 대규모조형, 웅장
한 평양의 야경, 관현악단과
군악단의 장렬한 음악, 무인
기들의 립체적인 활영, 형형
색색의 불꽃놀이 등 화려한
색채와 신기술을 동원함으로
써 무겁고 어두운 열병식의
관례를 깨고 《세련미와 화
려함의 극치를 이룬 불빛열
병식》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전투기편대들의 정교한 교
예비행장면, 전투기들이 불
꽃을 쏘면서 김일성광장의
하늘을 수놓는 장면, LED조
명기 장착된 전투기들이 평
양하늘을 가르며 화려한 불
빛을 뿜내는 장면 등은 《가
장 볼거리가 많은 열병식》으
로 만든 계기였다고 하였다.
멋진 백마기마대, 군중,
병종별로 다양한 색깔과 형
식의 현대화된 군복과 첨단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특해
공군은 물론 신형방위군과
보호복을 착용한 생화학부대
까지 이어진 최대규모의 열
병식행렬, 현대화된 각종 전
술, 전략무기들의 행렬은 어
둠속에서 조명을 받아 더욱
돋보이면서 세계를 열병식충
격에 빠뜨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당창건
75돐 열병식은 막강한 군
사력, 높은 문명수준을 남
김없이 과시한 최상, 최대
의 열병식, 전세계에서 가장
파
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이였다
고 하였다.

진절할 명절보살, 기쁨넘친 웃음소리

경사로운 10월명절을 맞으며
각지의 봉사지들에서 기쁨 넘
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옥류관과 평양대동강수산물식
당을 비롯한 수도의 봉사지들
에서는 봉사환경을 이채롭게 장
식하고 갖가지 요리로 손님들에
대한 봉사에 온갖 성의를 다 기
울였다.
대동강구역 림강정상점의 권영
애경리는 명절을 맞으며 봉사환경
을 개선하고 봉사성을 최대로 높
이는데 큰 관심을 돌리었다고 하

면서 뜻깊은 명절날에 인민을 위
해 봉사를 하는 긍지가 가슴에
딱 차민친다고 말하였다.
대성백화점에서는 명절봉사를
위한 시식회를 여러번 진행하여
요리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는가
하면 중구역에 위치한 만물식당

에서는 갖가지 요리들을 품들여
준비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명
절을 즐겁게 쇠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지방의 봉사지들에서도 인민
들이 명절봉사를 받으며 휴식의
한때를 윤택하고 인상깊게 보내
는것이였다.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을 계기로 성의있고 친절한 명
절봉사를 받아안은 각지 인민들
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복받은
인민들이냐를 명절의 한때를 보
내며 더 깊이 느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에게 참으로 귀중한
분이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일을 더 잘해나갔다》는 심경
들을 표시하였다.
봉사자들도 인민을 위해 그
어떤 라산도 앞세우지 않는
내내의 뜻을 실감으로 받들
겠다고,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 뿌듯이 느낀 10월
명절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
였다.
뜻깊은 10월명절을 즐겁게 보
내며 각지의 인민들은 어머니당
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였다.

